

##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의

### 「당 생활자(党生活者)」 연구

—〈나〉측과 구라다 공업 측의 공방을 중심으로—

황봉모 \_ 한밭대학교 일본어과 강사

#### 목 차

- I. 들어가며
- II. 「당 생활자(党生活者)」의 발표 전후 사정
- III. 「당 생활자」에 묘사된 〈나〉의 정체성
- IV. 구라다(倉田)공업 파업의 의미
- V. 나가며

#### 국문초록

본고는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1903~1933)의 「당 생활자(党生活者)」를 연구한 것이다.

고바야시 다키지의 「당 생활자」는 다키지 사후, 『중앙공론(中央公論)』 1933년 4월호와 5월호에 「전환시대(轉換時代)」라는 가제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발표되었다. 다키지의 「당 생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굴의 의지를 가진 비합법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묘사한 작품이다. 다키지는 이 작품에서 이제까지 일본근대문학에 존재하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활동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그려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 작품의 발표당시의 상황과 서지적 사항을 조사했다. 그리고 어떠한 곤란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주인공 〈나〉라는 인물과 군수공장인 구라다(倉田)공업 노동자의 투쟁을 고찰하여, 임시직 해고를 둘러싼 〈나〉측과 구라다 공업 측의 공방을 고찰해 보았다.

구라다 공업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군수품을 만드는 군수공장이 된다. 여기에 임시공의 해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그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나> 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다. <나> 측은 회사 측의 해고 날짜 하루 전에 선수를 쳐서 '전쟁 반대'와 '해고 반대' 선동을 하지만, 결국 해고를 당한다. 하지만 스야마의 '전쟁 반대' 파업 선동은 노동자들에게 전쟁 반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다고 생각된다. 파업선동이 계급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반전(反戰)과 결합되는 새로움을 부각시킨 점에 스야마의 파업선동 행동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고바야시 다키지, 「당 생활자」, 구라다 공업, <나>, 파업

## I . 들어가며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1903~1933)의 「당 생활자(黨生活者)」는 다키지 사후, 『중앙공론(中央公論)』 1933년 4월호와 5월호에 「전환시대(轉換時代)」라는 가제(仮題)로 두 번으로 나누어서 발표되었다. 다키지의 「당 생활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굴의 의지를 가진 비합법 공산주의자의 활동을 묘사한 작품이다. 다키지는 이 작품에서 이제까지 일본문학에 존재하지 않았던 불굴의 정신으로 당을 위해 활동하는 새로운 인간상(人間像)을 그려냈다.

작가는 「당 생활자」에서 문학운동의 지도자적인 당 활동가로서 작가 자신의 굴하지 않는 당 생활의 모습을 그림과 함께, 작가 자신이 직접 관계를 가지고 있던 군수공장의 임시공 노동자의 생활과 투쟁을 묘사했다.

본고에서는 우선, 이 작품의 발표 당시의 상황과 서지적 사항을 살펴 본다. 그리고 어떠한 곤란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주인공 〈나〉라는 인물과 군수공장인 구라다(倉田)공업에서의 투쟁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임시직 해고를 〈나〉 측과 구라다 공업 측의 공방을 중심으로 착안한 곳에 본고의 차별성이 있다.

## II. 「당 생활자(党生活者)」의 발표 전후 사정

고바야시 다키지는 1933년 2월 20일 정오경 가두만남 중에 붙잡혀서 겨우 7시간 후에 특고의 고문으로 학살당했다. 만 29세였다. 다키지의 장례는 3·15기념일인 3월 15일, 해방운동 희생자의 최고의 영예로 불리는 전국적인 노농장(勞農葬)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당 생활자」가 출간되었다.

「당 생활자」는 『중앙공론』 1933년 4월호와 5월호에 원제(原題)가 아니고, 「전환시대」라는 가제로서 발표되었다. 이 작품이 다키지가 원했던 「당 생활자」라는 제목이 아니고, 「전환시대」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당시의 시대상황에 대한 출판사 측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sup>1)</sup>

『중앙공론』 편집자인 나카무라 메구미(中村恵)는 다키지가 지하생활에 들어간 후, 두 번 직접 만나고 원고는 1932년 8월 말에 입수했다. 하지만 작품의 내용과 작가가 비합법 생활에 있던 사정 등으로 발표가 보류되어 있었다.

가제인 「전환시대」는 작가의 사후, 나카무라 메구미 편집자와 작가

1) 당시는 공산당이 비합법상태였고, 혁명운동의 선두에 서 있는 인간-공산당원을 지지하는 태도 자체가 치안유지법의 대상이었다.

동맹 관계자의 협의에 의한 것으로, 발표지인 『중앙공론』 1933년 4월호의 「편집후기」에 “창작 란에 우리나라 프롤레타리아문단의 대표 고바야시 다키지 씨의 쾌심의 유고인 대웅편(大雄篇)을 발표한다! 그 슬픈 죽음을 기억할 때, 이 걸작이야말로 하나의 큰 금자탑인 것이다. 작가의 원제는 시대상황상 허용되지 않기에, 제목 변경에 대해서 작가의 허락을 얻지 못해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중에 결국 그가 죽어 버렸다. ‘전환시대’는 가제인 것을 독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다키지의 「당 생활자」가 발표된 『중앙공론』 1933년 4월호에는 시마자키 도송(島崎藤村)의 「동틀 무렵(夜明け前)」도 같이 실렸다.

이러한 「당 생활자」의 제목 변경에 대해서는 다키지가 나카무라 메구미 편집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사정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다키지가 1932년 7월 9일에 나카무라 메구미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그는 이 작품의 제목을 처음에는 「실업자의 집」으로 정해놓고 있었다.<sup>2)</sup>

그런데 8월 2일, 다키지는 나카무라 메구미 편집자에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에 맞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당 생활자」라고 합니다. (중략) 이 작품에서 저는 「게잡이 공선(蟹工船)」과 「공장세포(工場細胞)」 같은, 저의 지금까지 방식과는 다른 모험적인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이전의 「실업자의 집」이라는 제목은 취소합니다.”라는 편지를 보내고 있다. 다키지는 이 작품의 제목을 「실업자의 집」에서 「당 생활자」로 바꾼다.

그 이유는 「실업자의 집」이라는 제목보다, 「당 생활자」라는 제목이 강렬하고 신선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자의 집」이라는 제목에는 소극적이고 패배주의적인 뉘앙스가 풍긴다. 이 제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지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인상

2) “전에 약속한 소설을 7월 내(늦으면 8월 5일까지) 보내겠습니다. 150~160매 예정입니다. 제목은 「실업자의 집」으로, 자신 있는 작품입니다.”(고바야시 다키지,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7권』, 신일본출판사, 1993, p. 593)

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키지는 당 생활에 긍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제목을 정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당’이라는 의미는 말할 것도 없이 당시 비합법의 공산당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1932년 8월 하순 그는 이 작품을 완성하고, 나카무라 메구미 편집자에게 “약속한 날보다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매수도 많아졌습니다. 이 점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고료는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되도록 빨리(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당 생활자」의 게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 제목 번호를 잊어버렸습니다만, 빨간 색으로 번호가 쓰여 있는 곳에는 앞 원고 순으로 숫자를 기입해 주세요.

○ 매수가 초과되었습니다만, 두 번으로 나누지 말고 꼭 한 번에 게재해 주세요.

○ 소설 제목은 내용으로부터 보아도 「당 생활자」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이 제목이 나쁘면 월말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 때에 다시 한 번 제목에 대해서 편지를 쓰겠습니다.

○ 이제까지의 프롤레타리아소설의 틀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한 작품입니다. 이제까지 저의 일정한 계열의 작품에서 보아도, 저는 이 작품의 성과를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쓴 것입니다.<sup>3)</sup>

이렇게 「당 생활자」의 원고는 원래대로 하면 1932년 가을에 발표되어야 할 작품이었지만, 작품 내용의 문제로 발표가 지연되어 다키지의 사후에 비로소 가제의 형식으로 세상에 발표되었다. 다키지의 「당 생활자」는 「전환시대」라는 제목으로 겨우 발표되었지만, 작품의 6분의 1에 달하

3) 같은 책, pp.595-596.

는 부분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삭제와 복자(伏字)가 되어 있고, 전혀 뜻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지워진 부분도 많았다. 그러나 당시 비합법 활동을 하던 다키지의 원고를 받아준 편집자와 위협을 무릅쓰고 이 작품을 출판한 『중앙공론』 출판사의 용기는 당시 시대상황에서 볼 때 감동적이다. 『중앙공론』 출판부는 이 작품의 출판은 물론이고,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1933년 3월 19일에 ‘역사적인 결작’이라는 문구로 이 작품의 광고까지 내는 파격적인 행동을 한다.<sup>4)</sup>

「당 생활자」는 1장에서 4장까지는 『중앙공론』 1933년 4월호에 「전환시대」로, 5장에서 9장까지는 5월호에 「전환시대(속)」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되었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전편 끝’이라는 표기가 있고, 작품의 완성 날짜를 나타내는 ‘(1932. 8. 25)’라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작가 부기로 ‘이 작품을 동지 구라하라 고레히토(蔵原惟人)에게 보낸다’라는 문장이 있다.

이 작품은 당국의 검열을 피하기 위하여 180매 전편에 걸쳐서 삭제와 복자가 행해졌는데, 삭제와 복자는 758개소, 그 자수(字數)의 총계는 14,059자에 이르고 있다. 복자 방법은, 단어는 ‘××’, 문장의 경우는 ‘……’로 나타내고, 삭제부분은 ‘(10자 삭제)’ 또는 ‘(이하 12행 삭제)’로 표시했다.

「당 생활자」는 「1928년 3월 15일」과 함께 전전(戰前) 국금(國禁)의 작품으로 취급되었다. 이 작품은 일본프로레타리아 문화연맹과 작가동맹 관계자들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전집 간행회에 의해, 원고에 의한 조판(組版)이 행해져 그 지형(紙型)이 보존되었다. 또 『중앙공론』 편집부와 작가동맹 사람들이 뜻을 모아 검열과 삭제를 거치지 않은 교정쇄 네 통을 전쟁이후까지 네 명이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 역시 국가권력에 의해 학살당한 작가에 대한 마음이 엿보인다.

「당 생활자」는 『중앙공론』에 발표된 이후, 전전에 전집수록의 형식으로 한 번 발행되었다. 그것은 1935년 6월, 나우카(ナウカ)사에서 발행된

4) 노마필드 저, 강윤화 역, 『고바야시 다키지 평전』, 실천문화사, 2018, p.254.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3권』에 수록된 것이다. 이것은 『중앙공론』의 판본이 저본이 되어 있지만, 삭제 부분이 발표 잡지보다 상당히 복원되어 있다. 제목도 원제에 가까운 「×생활자」로 표기되어 있다. 나우카사는 발매 금지에 처해질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전집을 발행했다고 생각된다. 이 작품은 전후인 1946년 5월, 신흥출판사에서 발행한 『1928년 3월 15일 · 당 생활자』에 의해, 비로소 완전한 형태로 복원되었다.

### Ⅲ. 「당 생활자」에 묘사된 〈나〉의 정체성

고바야시 다키지는 아키타 현(秋田縣)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다. 1907년 12월 고바야시 일가는 가난을 피하여 홋카이도로 이주한다. 고바야시 다키지는 1921년 백부의 원조로 오타루(小樽)고등상업학교에 입학하여, 1924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홋카이도 척식(北海道拓植)은행 오타루 지점에 취직한다. 1927년경부터 그는 사회과학을 배우면서 사회의 모순을 알게 되고, 그 후 오타루의 노동운동에 직접 참가하며 프롤레타리아문학 운동에도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게 된다.

「1928년 3월 15일」에서 천황제(天皇制)권력의 야만적인 탄압에 굴하지 않는 전위(前衛)의 모습을 묘사해 신진 프롤레타리아 작가로 등장한 고바야시 다키지는, 「당 생활자」에서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생활을 포기하고 국가권력과 싸우는 당 활동가의 모습을 그렸다.

미야모토 겐지(宮本顕治)는 「당 생활자」가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 분야만이 아니고, 일본근대문학사에서 중요한 작품의 하나라고 평가한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서, “일본문학 가운데 권력으로부터 쫓기면서 그것에 대항하여 혁명운동에 전신을 내던져 활동하는 주인공이 나타난 것은 이 「당 생활자」가 처음이었다.”<sup>5)</sup>라고 높이 평가한다.

또 오다기리 스스무(小田切進)는 『게잡이 공선·당 생활자』에서, “「당 생활자」는 「게잡이 공선」과 함께 고바야시 다키지의 가장 뛰어난 작품일 뿐만 아니라, 일본프롤레타리아문학을 대표하는 걸작이다.”<sup>6)</sup>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일본근대문학에서 「당 생활자」가 차지하는 문학적 위치를 알 수 있다.

다키지는 1932년 당시 일본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의 서기장이었다. 그는 당시 문화연맹 당 그룹의 책임자로서 문학운동의 지도적인 평론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작품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타내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당 생활자」는 그 실천의 결실이었다.

다키지는 1932년 봄 작가동맹 제5회 대회에서 발표된 「제5회 대회를 앞두고(第五回大会を前にして)」라는 권두사를 쓴다. 그는 이 글에서, “우 리들이 파시즘에 대한 투쟁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지적해야 하는 것은 활발하지 않은 작품 활동이다. 파시즘,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투쟁을 ‘직접적으로’ 취급한 ‘작은 형식’의 작품을 계속 생산함과 동시에 이 미증유의 정세야말로 사회적 테마를 취급한 위대한 형식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새로운 관심을 집중해야만 한다.”<sup>7)</sup>라고, 활발한 작품 활동과 사회적 테마를 취급한 작품 창작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그가 권두사에서 말한 파시즘에 대한 투쟁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활발한 작품 활동과 사회적 테마를 취급한 작품 창작, 「당 생활자」는 바로 이러한 의도로 창작된 작품이었다.

1932년 3월 일본프롤레타리아 문화연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

5) 미야모토 겐지, 『「당 생활자」에서(「党生活者」の中から)』(미야모토 겐지 문예평론 선집 제3권(宮本顯治文芸評論選集 第三卷)), 新日本出版社, 1974, p.514.

6) 오다기리 스스무, 「해설」, 『蟹工船 党生活者』, 角川文庫, 2009, p.262.

7) 이 글은 일본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 기관지인 『프롤레타리아문학(プロレタリア文学)』(일본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 출판부, 1932년 4월호, p.5)에 권두언으로 게재되었다.

작되자, 다키지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비합법의 지하생활에 들어간다. 그는 지하생활 중 개인적 관계로도 경제적으로도 극도의 곤란한 생활을 보낸다. 다키지는 자신이 지하생활 중에 체험한 생활을 이 작품에서 〈나〉를 통해 생생하게 쓰고 있다. 경찰의 추적을 벗어나는 도피, 변장, 이사, 그리고 긴장되고 부자유한 생활 등 지하생활의 실감은 「당 생활자」의 〈나〉의 생활 그대로였다고 할 수 있다. 다키지는 「당 생활자」에서 혁명운동에 관계하는 한 인간이 개인의 생활을 어디까지 버릴 수 있는가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국가권력에 맞서는 강철 같은 사람이다. 〈나〉는 권력의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어머니와 형제와 가사하라(笠原),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에 대해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우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나〉를 살펴보자.

〈나〉는 세계제일의 조직망을 자랑하는 경찰의 추적에 쫓기면서 일을 하고 있다. 비합법 신분의 〈나〉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다.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던 때와는 일상의 모든 생활이 달라진다. 〈나〉는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차단당하고, 개인적인 친구와도 만날 수 없고, 잠시 목욕탕에 가는 일도 신경이 곤두서고, 만약에 잡히면 적어도 6-7년은 감옥에 가야 하는 처지다.

다키지는 「당 생활자」에서 이러한 〈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그린다.

〈나〉는 천천히 산책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을 보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나〉는 일상생활에서 전혀 산책을 할 수 없었다. 〈나〉는 훌쩍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방안에 있어도 부주의하게 창문을 열 수 없었다. 밖에서 내 얼굴을 보아서 안 되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는 유치장과 독방에 있는 동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동지들보다 어느 의미에서 더 괴로운 것은 훌쩍 밖으로 나

갈 수 있지만 그것을 억제해야만 하기 때문이었다.<sup>8)</sup>

비합법 신분으로 경찰에 쫓기는 <나>는 산책은 물론이고, 집에서 창문조차 마음대로 열지 못한다. 밖을 지나는 사람에게 보이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몸은 자유롭지만, 그것을 자신의 의지로 제어해야만 하기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찌면 더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퇴로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나>의 생애는 단지 일로만 채워져 있다. 전혀 개인적인 생활이 없는 것이다. <나>는 전혀 개인생활을 할 수 없기에 대부분의 개인생활의 범위를 배후에 가지고 있는 가사하라와 다투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남으로써 개인적인 생활의 최후의 퇴로마저 끊어 버린다. 마침내 <나>는 개인적인 생활이 동시에 계급적인 생활이라는 상황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인 생활이 없는 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생활을 강요받는다. 가사하라의 실직으로 돈이 궁해진 <나>는 연락하러 갈 때,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걸어서 가기도 하고 밥을 못 먹어 동지에게 얻어먹기도 한다. 「당 생활자」에서는 가사하라의 실직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나>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가지가 싸서 사려고하면 5전에 2, 30개나 사기에 그것을 아래층 아주머니의 겨뒀장에 처넣고 아침, 점심, 밤, 세 번 모두 그 가지로 해결했다. 사흘이나 그것을 계속하자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여 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고 땀이 나와 곤란했다.(중략) 배가 고프고 몸이 피곤한데도 똑같은 반찬이면 조금도 식욕이 나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밥에 뜨거운 물을 붓고 눈을 힘껏 감고 텁텁텁텁 급히 먹었다.

8) 고바야시 다키지, 「당 생활자」,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4권』, 신일본출판사, 1993, p.411.

그래도 밥이 있을 때는 좋았다. 밤에 세 번 정도의 연락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에 돈이 없어 걸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때, 아침부터 한 번밖에 밥을 먹지 않았을 때는 비참한 마음이 들었다.<sup>9)</sup>

가사하라의 실직 후 <나>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빈궁한 생활을 한다. 합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릴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비합법인 <나>에게는 불가능했다. <나>는 보통의 생활을 하고 있는 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사하라가 작은 다방에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돈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그것은 단지 경제적 생활이 해결된 것이었다. 개인생활이 계급생활인 <나>는 지극히 고난한 생활을 이어간다.

<나>는 ‘지방’, ‘지구’ 거기에 ‘공장 활동가’의 일이 겹쳐 있어, 하루에 12, 3회까지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 때는 아침 9시경에 나가면, 밤 10시경까지 소요되었다. 집에 들어오면 목덜미가 막대기처럼 굳어져,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나>는 겨우 계단을 올라서, 그대로 다다미 위에 엎어졌다. <나>는 그 무렵 어떻게 해도 위를 향하고 느긋하게 잘 수 없게 된다. 극도의 피로로부터 몸의 어딘가가 나빠져 있는 듯, 약한 아이처럼 곧바로 엎드려서 잤다.

엎드려서 밖에 잠을 잘 수 없는 <나>는 아키타(秋田)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때에 밭에서 나오면 진흙투성이의 짙신인 채로 자주 엎드려 텃마루에서 낮잠을 자고 했던 아버지를 기억한다. 그리고 자신과 아버지를 비교한다. 다키지는 「당 생활자」에서 지주의 착취에 고생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9) 같은 책, p.414.

아버지는 몸이 상할 정도로 무리하면서 일하고 있었다.

소작료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 누구도 손을 대지 않는 자갈투성이의 들판을 여분으로 경작하고 있었다. 거기서 조금이라도 수확을 올려서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심장이 매우 나빠져 있었다. -나는 도저히 엎드리지 않으면 잘 수 없을 때, 내가 점점 아버지와 닮아 간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지주에게 항의해서 소작료를 깎아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망가뜨릴 때까지 일하는 것으로 거기서 벗어나려고 했다. 이십 몇 년이나 전의 일이지만. 하지만 나는 다르다.<sup>10)</sup>

다키지 아버지의 세대는 지주에게 항의하여 소작료를 깎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세대였다. 그들은 소작료를 내기 위해 오로지 자신의 몸을 확대하면서까지 일을 하였다. 하지만 다키지는 달랐다. 그는 아버지 세대와 같이 자신의 몸을 확대하면서까지 소작료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고, 지주에게 소작료 감면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서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에 나서기 위해 <나>는 “한 명 있는 어머니와도 연락을 끊고, 누이나 남동생으로부터도 몸을 숨기고, 지금은 가사하라와의 생활도 희생한다. 거기에 덧붙여 <나>는 몸마저 그 때문에 망가지기 시작한 듯하다-그러나 이것들은 아버지처럼 지주나 자본가에게 좀 더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반대를 위해서다!”라고, 말한다.

극심한 피로 때문에 바로 눕지를 못 하고 엎어져서 잠을 자는 것은 자신과 아버지가 같은 상태였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와 달리, 자본가에게 더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의 행동을 한다.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나>는 모든 개인적인 관계를 차단하고, 이제는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오직 당 활동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다.

---

10) 같은 책, p.430.

이러한 <나>에게는 계절의 절기조차 당 생활 속의 일부밖에 되지 않는다. 사계절의 화초의 경치나 푸른 하늘이나 비도 독립한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다. <나>는 비가 내리면 기쁘다. 하지만 그것은 정보를 알리러 나 가는데 우산을 들고 가기 때문에 얼굴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일이 적기 때문이다. <나>는 빨리 여름이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여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름이 오면 옷이 얇게 되어, 자신의 특징 있는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빨리 겨울이 오면, <나>는 ‘자, 이제 일 년 수명이 늘어 활동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활에 들어서면서 <나>는 계절에 대해 무관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조금도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으로 대단히 예민해진다.

<나>에게는 조금의 개인생활도 남지 않게 된다. <나>는 개인적인 생활이 없는 것은 물론, 모든 개인적인 관계를 희생하며 당 활동을 한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만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희생이라고 하면 <나>는 자신의 전 생애를 희생하고 있다. 하지만 희생이라고 해도 수백만의 노동자와 빈농이 매일의 생활에서 감내하는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것을 20년이 넘게 빈농으로 괴롭게 살아온 부모님의 생활로부터 직접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자신의 희생도 수백만이라는 큰 희생을 해방하기 위한 불가결한 희생이라고 생각한다.<sup>11)</sup>

<나>는 전연 개인생활이 없는 <나>이다. 당 활동을 위해 개인적인 관계도 모두 차단했다. 이것은 분명 개인적인 생활의 희생이다. 하지만 <나>는 수백만의 노동자와 빈농이 매일의 생활에서 감내하는 희생에 비

---

11) 같은 책, pp.415~416.

하면, 자신의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희생이라고 하면, 수백만이라는 큰 희생을 해방하기 위한 불가결한 희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당 생활자」의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노동자와 농민의 해방을 위하여 국가권력에 맞서고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

앞에서 다키지는 『중앙공론』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원고료를 되도록 빨리 집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집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다. 다키지는 「당 생활자」의 원고료에 대해 동생인 산고(三吾)에게 보낸 편지에서, “동봉한 돈은 돈이 생명인 내가 보내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때로 가지절임만으로 사흘을 버틸 때도 있으니까) 한여름을 잘 참고 지내신 어머니를 하루 정도 시원한 곳에서 쉬게 해 드리는데 써 주렴.”이라고 쓰고 있다.<sup>12)</sup> 어머니에 대한 다키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자신은 돈이 없어서 가지절임만으로 며칠을 버티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돈으로 더운 여름에 피서라도 다녀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키지의 지하생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다. 또한 「당 생활자」 작품 속 어머니의 모습이 현실의 다키지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이러한 〈나〉에 대해 「당 생활자」 속의 어머니는 자신이 죽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아들인 〈나〉가 혹시 올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자신이 죽어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나〉는 마지막에 남아 있던 개인적 관계의 끈을 자를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러한 〈나〉의 인성은 함께 살고 있는 가사하라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회사에서 해고된 후, 취직자리를 구하던 가사하라는 작은 다방에서

12) 고바야시 다키지,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7권』, 신일본출판사, 1993, p.596.

일하게 된다. 「당 생활자」에는 피곤에 절어 귀가하는 가사하라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가사하라는 처음에는 하숙에서 그곳에 다녔다. 밤늦게 익숙하지 않은 잔걱정이 많은 일이었기 때문에 피곤하여 불쾌한 얼굴을 하고 돌아왔다. 핸드백을 내팽개친 채 그곳에 옆으로 앉으며 어깨를 축 떨어뜨렸다. 말하는 것조차 귀찮은 모양이었다. 잠시 지나자 그녀는 내 앞에 말없이 발을 뺐어 왔다. “——?” 나는 가사하라의 얼굴을 보고 한 발을 만져 보았다. 무릎과 복사뼈가 몰라볼 정도 부어있었다. 그녀는 다리를 다다미 위에 구부려 보았다. 그러자 관절부분의 살이 희미하게 으드득 소리를 냈다. 그것은 거슬리는 소리였다. “하루 종일 서 있다는 것은 힘든 일이네.”하고 말했다. (중략) 나는 오랜만에 자신의 다리 안에 작은 가사하라의 몸을 안아주었다. — 그녀는 눈을 감고 그대로 있었다.<sup>13)</sup>

가사하라는 말없이 발을 뺐어 오고, <나>는 한 발을 만져본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다리 안에 작은 가사하라의 몸을 안아주고, 그녀는 눈을 감고 그대로 있다. 이 장면은 다방 취직을 둘러싸고 떨어진 <나>와 가사하라가 화해하는 계기가 되는 장면이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당 활동을 하는 <나>였지만, 익숙하지 않은 힘든 일을 하는 자신의 반려자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이렇게 <나>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와 가족과 반려자, 그리고 노동자·농민에 대해서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

13) 고바야시 다키지, 「당 생활자」,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4권』, 신일본출판사, 1993, pp.427~428.

## IV. 구라다(倉田)공업 파업의 의미

「당 생활자」의 구라다 공업은 전쟁<sup>14)</sup>이 시작되고 나서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당 생활자」의 무대가 되었던 곳은 도쿄(東京) 고탄다(五反田)에 있는 후지구라(藤倉)공업이다.

1932년 4월경 다키지는 군수공장인 후지구라 공업의 노동자들과 만남을 가진다. 후지구라 공업의 노동자들은 회사 측과 임시직 문제와 임금 문제 등으로 대립하고 있었다. 노동자들은 당시 공장 내 상황과 다키지와 관계를 가지게 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부분적으로는 모두의 불평불만의 선두에 서서 싸우는데 성공했지만, 곤란한 것은 일하는 기간이 짧은 것, 불만이 거의 임시공의 문제 이기에 용감하게 말하면, 정규직 측에서 “건방지다. 주제넘다.”라고 하여 정규직과의 관계도 곤란한 점, 이런 조건에서 “해고 반대” “임시직을 정규직으로!”라는 요구로 싸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 활동적인 누군가가 “프롤레타리아 소설가인 고바야시 씨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부탁해서 모두를 모으면 어떨까?”하고 제안했다. 그것도 이 조직 사람들을 대중적으로 모으는 좋은 방법이었기에 즉시 한 사람이 공장을 조퇴하고 동지 고바야시에게 부탁하러 갔다.<sup>15)</sup>

후지구라 공업의 노동자들은 1일 13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기에 집회장소조차 찾을 수 없었지만, 다키지는 그들을 친절하게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고바야시 다키지 소설을 듣는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20여 명의 남녀 노동자가 모였다. 젊은 노동자들이 자신들 공장의 일을 소설에

14) 1931년 9월 발생한 만주사변을 말한다.

15) ××지구 ××군수공장 내 마쓰코(マツ子), 「고바야시의 학살에 즈음하여(小林の虐殺に際して)」, 『赤旗』, 적기사, 1933년 3월 12일.

써 달라고 하자, 다키지는 “너희들 공장의 일을 나도 쓰고 싶지만 언제나 감독에게 험박당하고 두려워한다든지, 암전하게 해고당했습니다 라는 것은 창피해서 쓸 수가 없지 않은가. 이번의 해고 따위 너희들이 맨 앞에서 반대해라. 그러면 아저씨도 후지구라의 노동자는 이렇게 훌륭하다고 뽐내면서 소설에 쓰겠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후지구라 공업의 노동자들과의 만남은 급변한 다키지의 사정에 의해 단기간으로 끝났지만, 그 경험은 4개월 후에 집필한 「당 생활자」의 소재가 되었다.

「당 생활자」에서 구라다 공업은 군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젊은 공장의 노동자들이 전쟁에 나갔다. 그리고 한편 군수품제조 일이 급격하게 늘었다. 공장은 이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구라다 공업은 200명 정도의 금속공장이었지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600명의 임시공을 모집했다. 200명의 정규직에 600명의 임시공을 채용할 정도로 공장 일이 어느 정도 바빠졌는지 알 수 있다.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신원보증인의 조사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나〉와 스야마(須山)와 이토(伊藤)는 그 기회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가지고 들어간다.

구라다 공업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제까지 전선을 만드는 것을 그만두고, 독가스용 마스크와 낙하산, 비행기 날개 등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최근 그 일이 일단락 지어졌기에 600명의 임시공을 해고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임시공의 해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그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나〉 측 사이에 벌어지는 공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회사 측의 1단계 방법은 해고 때에 10엔을 위로금으로 준다는 내용이었다.

회사 측은 임시공의 해고 때, 한 사람당 10엔씩 준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그런데 임시공의 해고 때, 회사가 한 사람당 10엔씩 준다는 소문에

는 회사의 책략이 숨겨져 있었다. 그런 소문을 내어 해고 때 임시공의 동요를 막고 마지막 순간에 감쪽같이 해치우려는 수법이였다.

이것에 대해서 〈나〉와 스야마와 이토는 공장에 몰래 유인물을 배부하여 이러한 회사 측의 책략을 폭로한다. 10엔을 위로금으로 준다는 소문은 〈나〉 측의 폭로로 무산된다. 이후 회사 측과 〈나〉 측은 서로 공장 직원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한다.

10엔 위로금의 소문이 무산되자, 회사 측은 2단계 전술로 나온다. 회사는 처음의 임시공 600명을 해고한다는 방침을 바꾸어, 성적이 우수한 200명은 정규직으로 편입한다는 책략으로 나온다. 이것은 해고 때에 임시공들의 보조를 흠뜨리기 위한 술책으로, 임시공끼리 서로 정규직에 편입하려고 경쟁시키는 교묘한 방법이였다.

공장에서는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여공에 대한 착취도 더 심해졌다. 회사 측은 “전쟁에서 적의 총탄을 맞으면서 싸우고 있는 군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일해야 한다.”고 일을 독려한다. 그리고 재향군인이 직원으로 들어와 동료들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우익의 사람들과 청년회 사람들을 동원해 직원 스스로 군대 위문금을 모집하는 선동을 하기도 한다. 〈나〉 측은 이러한 회사 측의 선동에 하나하나 대응하여, 그들의 모순된 이론을 폭로한다. 그리고 「마스크」라는 공장신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공장 내에 가지고 들어가 직원들에게 몰래 배부한다.

구라다 공업이 임시공 200명을 정규직으로 바꿀지도 모른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다음 단계 행동으로 나온 것에 대해, 〈나〉 측은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을 재결성하기로 한다. 스야마의 영향하의 그룹에서 젊은 정규직 직원 한 명. 그리고 이토의 그룹에서 두 명, 그중 하나는 정규직이고 한명은 임시공이였다. 이 세 명을 새롭게 조직에 끌어들이는다.

그리고 각 조직에 대해서 작업장 내의 책임을 명확히 분담해서 책임을 맡게 하고 스야마나 이토에게 만에 하나 일이 뒤틀렸을 때 다음 조가

바로 준비된 새로운 부서를 따라서 일이 하루라도 차질이 안 되게 계획을 세운다. 스야마나 이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공장에 있을 땐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새로운 조가 스야마와 〈나〉의 연락 장소에 찾아오는 것으로 해놓는다.

한편, 군대 위문금 문제로 청년회모임에서 난투를 했기 때문에 스야마는 극도로 위협해져 있었다. 스야마는 오늘 당할지 내일 당할지를 각오하고 매일 공장에 나와 있었다. 공장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있을 때 ‘잠깐 외’를 당하면 그뿐이었다. 하지만 조직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매일 공장에 나갔다. 위협하긴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의 일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고 있고 모두가 신용하고 있었다.

전쟁 때문에 공장에서의 일이 더 힘들어졌다. 하지만 임시공들은 자신의 생활에서 ‘전쟁은 전쟁, 일은 일’이라고 나누어 생각하고 있었다. 일이라는 현실에 덮치고 있는 가혹함이 모두 전쟁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나〉와 스야마와 이토는 「마스크」를 통해서 이러한 직공들에게 왜 전쟁에 반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한다.

이러한 가운데 회사 측과 〈나〉 측의 싸움은 임시공의 해고날짜인 말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마지막 결전의 시간을 맞이한다.

회사 측은 해고날짜를 31일로 가장하고, 실은 그 전전날인 29일로 정하고 있었다. 해고 때 임시공들의 집단적 저항을 막기 위해서였다. 여기에 〈나〉 측은 해고 전날인 28일에 파업선동을 일으키기로 한다. 파업선동은 누군가 대중 앞에서 대중적 선동을 하는 방법이 최선이었다.

〈나〉와 스야마와 이토는 회의를 열고, 해고 전날인 28일에 파업선동을 하여 선수를 치기로 한다. 〈나〉는 회사 측과 싸울 마지막 기회인만큼 결정적인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한 방법은 스야마가 공공연하게 당의 유인물을 뿌리며 ‘해고반대’의 대중적 선동을 하는 것이었

다. <나>는 누군가가 대중 앞에서 공공연히 하지 않으면 싸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스야마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을 꺼낸다.

「당 생활자」에는 세 사람이 회의를 열어 스야마가 대중적 선동을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나는 거기서, 나의 의견을 제안했다. 순간, 억눌린 듯한 긴장된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짧은 순간이었다.

“나도 그렇다고 생각해……”

스야마는 과연 굳어진 목소리로, 최초로 침묵을 깼다.

나는 스야마를 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것은 당연히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수긍했다.

(중략)

보니, 스야마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다리 앞의 빈 담배상자를 잘게, 잘게 자르고 있었다.

방법이 정해졌을 때, 문득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지금까지 알아차리지 못 하고 있던 큰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줄지은 발소리와 끊임없이 소리치고 있는 노점장사꾼의 큰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왔다.<sup>16)</sup>

최후의 대책은 스야마가 공공연히 선동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당의 유인물을 뿌리게 되면 투쟁 경력에 따르겠지만 2, 3년에서 4, 5년의 감옥 생활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각기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한다.

이토는 몸이 잔뜩 굳어져서, 스야마와 <나>를 눈만으로 보고 있고, 스야마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다리 앞의 담배의 빈 상자를 잘게 잘게 자른

16) 고바야시 다키지, 「당 생활자」,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4권』, 신일본출판사, 1993, p.438.

다. 그리고 <나>에게는 비로소 큰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끊임 없이 소리치고 있는 노점장사꾼의 큰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온다. 세 사람이 이러한 결정에 모두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구라다 공업의 옥상은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가 그곳에 모여 비로소 햇빛을 온몸에 받으면서 엎드려 눕거나 이야기에 열중하거나 장난치거나 배구를 하거나 했다. 그날은 콘크리트 옥상에 초여름의 햇빛이 눈부실 정도로 내리쬐고 있었다. 스야마는 옆에 동료들 배치를 하고 만일의 경우 검거를 방해시킬 준비를 해두었다.

그리고 마침내 스야마는 옥상에서 유인물을 뿌리며 대중적 선동을 시작한다.

1시 15분전, 그는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며 유인물을 있는 힘껏 계속해서 위로 던졌다. '대량 해고 절대 반대!' '파업으로 반대하자!' 그러나 뒤의 말은 모두의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빨간 색과 노란 색으로 된 유인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다. 유인물이 뿌려지자 모두는 깜짝 놀라서 멈추어 섰지만, 그 뒤는 와하고 고함치며 유인물이 뿌려진 곳으로 달려왔다. 그러자 그중 몇 십 명이 정색이 되어 주위 올린 유인물을 제각기 높이 뿌려 올렸다. 그래서 처음 한곳에 뿌려진 유인물은 순식간에 600명 직원들 머리위로 퍼졌다.<sup>17)</sup>

직원들이 제각기 유인물을 머리위로 뿌려 올리는 틈을 타서 스야마는 무리들 속에서 유유히 옥상을 내려와 직원들 사이로 사라진다. 직원 가운데 스야마가 유인물을 뿌렸음을 알고 있는 자도 있었지만,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잡히면 몇 년의 감옥생활이 기다리고 있는 대중선동이었지만, 스야마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

17) 같은 책, p.442.

〈나〉 측의 파업 선동은 외견상 아무런 희생도 없이 성공적으로 끝난다.

하지만 다음날 회사 측은 임시공 600명 중 200명을 정규직으로 하고, 나머지 400명에게 2일분의 급료를 건네주고 정문에서 해고한다. 그곳에는 경찰이 15명 정도 나와 있었다. 〈나〉 측은 회사 측의 이러한 조치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었다.

스야마의 파업선동은 실패로 끝난다. 하지만 스야마의 ‘대량 해고 절대 반대!’라는 파업 선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구라다 공업 노동자들은 파업 선동을 경험한다. 이러한 파업선동 경험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직 공장 정규직에 동료가 남아 있고, 해고된 임시공들도 다른 일을 하게 된다. 그들과의 연락을 확보하면 투쟁분야는 오히려 넓어질 것이다.

또한 스야마의 파업선동은 ‘대량 해고 절대반대!’ 구호만이 아니었다. 그는 ‘대량해고 절대반대!’와 더불어 ‘전쟁에 반대하자’라는 구호를 외친다. 임시직 노동자의 해고문제가 단지 공장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시킨 것이다. 파업선동이 계급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반전(反戰)과 결합되는 새로움을 부각시킨 점, 여기에 〈나〉 측의 구라다공업 파업선동 행동의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V. 나가며

이상, 다키지의 「당 생활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발표당시의 상황과 서지적 사항을 조사했다. 그리고 어떠한 곤란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을 하는 주인공 〈나〉라는 인물과 군수공장인 구라다 공업 노동자의 투쟁을 고찰해 보았다.

요컨대 「당 생활자」에서 주인공 〈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국가 권력에 맞서는 강철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어머니와 형제와 가사하라, 그리고 농민과 노동자에 대해 한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극도의 곤란한 생활을 하면서도 당 활동에 헌신한다. 이 작품에서 개인적 생활이 없는 〈나〉의 생활은 다키지 자신이 지하생활 중에 체험한 생활 그대로였다.

한편 구라다 공업은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군수품을 만드는 군수공장이 된다. 여기에 임시공의 해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그것을 저지하려고 노력하는 〈나〉 측 사이에 공방이 벌어진다. 〈나〉 측은 회사 측의 해고 날짜 하루 전에 선수를 쳐서 ‘전쟁 반대’와 ‘해고 반대’ 선동을 하지만, 결국 해고를 당한다.

하지만 스야마의 ‘해고반대’와 ‘전쟁 반대’ 파업 선동은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것이다. 파업선동이 계급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반전과 결합되는 새로움을 부각시킨 점에 스야마의 파업선동 행동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파업선동 행동은 반드시 다음 기회를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9년 5월 15일

논문 심사일 : 2019년 6월 10일

게재 확정일 : 2019년 6월 24일

## 참고문헌

- 노마 필드 저, 강윤화 역, 『고바야시 다키지 평전』, 실천문학사, 2018.
- 小林多喜二, 「党生活者」, 『小林多喜二全集 第四卷』, 新日本出版社, 1993.
- 小林多喜二, 『小林多喜二全集 第七卷』, 新日本出版社, 1993.
- 小林多喜二, 『プロレタリア文学』, 日本プロレタリア作家同盟出版部, 1932.
- 宮本顕治, 『「党生活者」の中から』(宮本顕治文芸評論選集 第三卷), 新日本出版社, 1974.
- 小田切進, 「解説」, 『蟹工船 党生活者』, 角川文庫, 2009.
- ××地区××軍需工場内マツ子, 「小林の虐殺に際して」, 『赤旗』, 赤旗社, 1933년 3월 12일.

## Abstract

# A Study of “Party activist” of Takiji Kobayashi

Bong-mo Hwang

This paper has studied “Party activist” of Kobayashi Takiji(1903~1933).

First of all, in this paper, I investigated the situation and the bibliographic items at the time of the presentation of this work. I looked at the character “I” of the hero who is devoted to the truth despite any difficulties. And I examined the fighting at Kurada Industry which is a military factory.

In short, in “Party activist”, the hero's ⟨I⟩ is a man like steel that opposes the power of the state with an indomitable will. And at the same time, ⟨I⟩ have infinite love to mother, brother, Kasahara, and farmers and workers. While ⟨I⟩ live an extremely difficult life economically and physically, ⟨I⟩ is devoted to party activities. In this work, the life of ⟨I⟩ without an individual's life was the life that Takiji himself experienced in the underground life.

On the other hand, Kurada Industry becomes a military factory that produces munitions after the war begins. A battle will be held between the company side and the ⟨I⟩ side, which is trying to prevent it, over the dismissal of temporary workers. The ⟨I⟩ side acts before the company's date of dismissal. ⟨I⟩ instigated “oppose war” and “opposed to dismiss” to factory workers, but eventually they will be fired. However, in spite of this, ⟨I⟩ and Suyama and Ito are active actively in new places.

## Key words

Kobayasi Takiji, “Party activist”, ⟨I⟩, Kurada industry, strike